“공무 중에도 ‘국민행복’ 화두 놓지 말길”

공불련, 종정 진제 스님 법사로 첫 참선법회

42개 기관, 250여 명 참여
9월 2~3일 동화사 철야정진
진제 스님 “생활 화두 지속”


자정 무렵 동화사 통일대불보전에서는 참선 법회가 열렸다. 참선 법회에는 전국 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위원)가 창립 최초로 전국 공무원들이 참여한 참선법회를 개최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섰으며, 42개 기관 불자회 회원 및 가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을 날씨로 바뀌어 가는 9월 2일 동화사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통일대불전에 모여 이틀간의 일정을 입재법회로 시작했다.

입재법회서 김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선수행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좋은 방편”이라며 “수행은 오감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즉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참선수행을 공무원 불자들이 평소에도 해나가자. 항상 국민행복을 화두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해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시장,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송도근 공불련 고문(사천시장),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해 첫 참선법회를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은 “지혜는 참선을 해야 마음의 광명이 밝아서 모든 사리판단이 정확하고 어디 갖다놔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법”이라며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재법회 이후 통일대불전에서는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국악과 가요, 창 등 문화공연에서 박근미(김해시청불자회/오카리나 연주), 황민구(부산광역시 서구/팬플룻연주), 김인숙(우정사업본부/창) 회원이 재능기부로 솜씨를 발휘했다.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예불까지는 동화사 선원 스님 지도하에 철야참선수행이 이어졌다.

3일 회향법회에서 250여 공무원 불자들은 “우리 공무원불자들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고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 참여한 한 공무원 불자는 “평소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 불자들과 함께 정진해 의미가 더욱 깊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불련은 10월 28일 합천 해인사에서 창립 17주년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불련은 매주 셋째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공무원 불자들의 신심 증장에 앞장서고 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즐겁게 사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이들이 마음 편히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체인력 서비스’ 종사자 보호 절실”

불국토, 인력지원센터 개소 10주년 세미나 개최

서비스 복지 실태 공유
인권 · 전문성 강화 제시



대체인력 서비스는 임신과 육아 그리고 병가 등으로 생기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는 열악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범산)가 2007년 전국 최초 ‘대체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9월 1일 부산시청에서 이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대체인력 종사자들이 참여해 10년 간의 센터 성과를 돌아보며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미경 부산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 소장은 “부산은 전국 최하위 출산율, 그리고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의 문제에 처해있다. 때문에 대체인력사업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며 센터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대체인력서비스는 여성 일자리 복귀와 안정적인 출산에 도움을 줘 매년 파견근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사 중 여성이 90%로 육아 및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취약 계층으로 전락한다”며 사회복지 계열의 대체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급여가 낮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 시비로 운영되지만 대체인력사업 지속성과 안정화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과 중앙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체근무자들은 조직의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 인권보호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혜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과장은 “파견근무자들의 경우 전문성이 낮아 기존 종사자의 업무를 감당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며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불국토 대표이사 범산 스님은 “부산시의 고용율 향상과 실업률 저하라는 희망을 담아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는 2007년 5월 취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지원 사업’과 2008년 5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복지우수프로그램으로 각각 선정됐다. 부산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는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변화를 이끈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성미 기자



충청 지역 신행중심될 마곡사 불교회관 개관

9월 2일 공주시 신관동… 총 3개층 규모



충청지역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마곡사 불교회관이 건립됐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9월 2일 공주시 신관동에서 불교회관 삼존불 점안식과 현판식을 봉행했다. 불교회관은 1500㎡ 대지에 연면적 933㎡으로 총 3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에는 사무실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3층에는 법당이 자리한다.

마곡사 불교회관에서는 신행 포교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 등 문화강좌, 화요일에는 불교강좌, 금요일에는 마음치유명상강좌도 열린다. 공주불자연합회가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합동법회도 열 계획이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회관을 찾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와 인문학강좌 및 명상강좌, 어린이 불교 교실 등을 실시하고, 충청지역 신행과 포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철웅 스님은 법어에서 “올바른 불자의 자세는 불법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개관한 불교회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

“법정 스님 무소유정신, 어린이들에게”

맑고향기롭게, 제1회 무소유어린이 글짓기 대회 24일 개최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일)가 길상사서 첫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9월 24일 오후 1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알리고, 가치관 형성에서 불자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주제는 당일 공개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까지 모집한다. 작품심사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수상자는 10월 18일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 29일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된다.

글짓기 대회 당일에는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불교 그림 스크래치, 비누 만들기, 단주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맑고향기롭게 에코백에 간식과 기념품도 제공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장 및 상품권, 법정 스님의 동화책 ‘아름다운 무소유’를 수여한다. 수상작은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길상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사장 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41-4696 노덕현 기자

미래사회 동량 키울 인성교육 고찰

조계종 포교원, 9월 16일 국회서 세미나

불교계 인성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짚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불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적합한 인성프로그램의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박범석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박사의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가치와 성과’를 시작으로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의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인성과 인성교육 개념’,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의 ‘국가의 인성교육 정책방향과 불교인성교육의 상호 관계’ 등이 발표된다.

더불어 각 전문가들이 인성프로그램 개발 시 불교 인성교육의 기준을 제시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음의 안정과 심성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를 고민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